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성경본문 <민수기 1장 1절 ~ 19절>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5]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6]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7]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8] 잇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9]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10]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11]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12]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13]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14]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15] 납달리 지파에서는 예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16]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17]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8]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민수기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어서 기록**하여 놓았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민수기에는 **총 2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어서 기록하였는데, 오늘 첫 번째 출애굽한 후 1년이 지나서 확인했던 한 번과, 다시 말미에 40여년의 광야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기록하여 놓은 2번째가 그것입니다.

민수기만큼 우리들의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의 수준과 하나님께서 보고 생각하시는 수준이 다른 성경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반복되는 지파(종족, 가문)들의 인원수와 이름들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순종을 어떻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숫자를 파악하는 것의 의미”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파악하게 하신 이유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목민(광야의 나그네)으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부분(만나와 메추라기)들이 있었

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애굽한 후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하고, 안전한 광야생활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준비하고 연합하여서 스스로와 자신들의 소유를 지켜나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제 약속의 땅을 주실 텐데, **준비되지 않고,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은혜가 은혜 되지 않고, 오히려 커다란 시험 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의 수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조직을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군대에 나갈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는 뜻은 이제 군대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군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싸움은 너희들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땅을 다스릴 자로 삼으시는 중요한 훈련의 시작인**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 ...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5]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테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6]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7] **유다 지파**에서는 ... [16]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지명하여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지명하여 세웠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 종족들마다 계수된 수를 기록하였고, 2장에서는 어떻게 진을 형성하여야 하며, 또 행진하여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지명된 사람이 자신의 가문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수를 파악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수를 ‘오만 구천 삼백 명(시므온)이다, 사만 오천 육백 오십 명(갓)이다.’ 라고 적혀진 숫자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많고 적음을 파악하지만, **인원을 계수하는 가문의 대표들이 돌아다닐 때는 그들의 족보를 따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을 파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나가 싸워야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숫자의 총 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동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들의 동의와 순종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제목>

1.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게 하소서.
2.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의 뜻에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각각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